

宇宙의因果律

韓 龍 雲

가을을報하는梧桐의一葉 봄바람에울드는데 그最後가決定되어있든것이다 梧桐잎은 一定한構造가있고 一定한構造가있는故로 一定한機能이있고 一定한機能이있는故로 一定한壽命이있고 一定한壽命이있는故로 一定한死滅이있다 그럼으로梧桐잎은 나옴으로부터 떠러질때까지 毫厘不差의順序의變動이있는것이니 그變動의軌律은 나는데의構造에서預定하야진것이다

그렇나梧桐잎自體의構造만으로 그變動의軌律과壽命의最後를 斷定할수없는것이다 왜그렇나하면 梧桐잎의變動은 內的條件即自體의構成如何에만있는것이안이라 外的狀勢即天災地變人爲及環境의自然, 모든것에受動되는까닭이다 다시말하면 梧桐잎의構造가 百日間成長할機能과 百一日에死滅할壽命을 갖엇다하자 만은 疾風으로말매암어 暴雨로말매암어 狂童의惡戯로말매암어 其他모든環境의事情으로말매암어 意外的變動과天折을免치못할것이다 그렇다면 最初의構成要素로서의 必然的으로進展될 機能과壽命의豫定的軌律의效果가 없에있는가 이러한質間이었다면 그야말로 簡單明瞭한質間이되는同時에 어리석은質間이될것이다

梧桐잎은 「無」에서突出하는것은안이다 잎은나무에서나고 나무는땅에서나는것이다 잎이나고 發育하고 成長하고 滅亡하는것이 直接의體系되는 나무와땅以外에 空氣 風日 雨露等の惠澤이안이면 絶對로成立되지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外的狀勢即梧桐잎의變動과壽命에關係있는 自然과人爲는 다梧桐잎의因果律의 構成要素가될것이다

가을바람에떠러지는 梧桐의한잎새가 그에對한모든因果律이 宇宙의創造時에 規定되어야있어서 一絲不亂, 進行되어야온 것이라면 超宿命的, 一種의詭辯으로 認識하게될는지도모르는것이다

그렇나 百億光年の空間도 一步의다가안이나 恒河沙劫의時間도 一日의積이안이나 近因은 遠因의果가되고 遠因은 遠々因의果가되는것이다 梧桐의한잎새는 나무에서나고 나무는땅에서나고 梧桐이난다는 地球的一部分이다 地球는太

陽系遊星의 한아이다 地球는 星霧時代로부터 現象의地球가 될때까지 森嚴한因果律로 變遷되야온것이다 梧桐 一葉의開落이 地球의創造와聯鎖關係보다도 同一한系統의因果律임을 알기에는 그리어렵지안아하다 그뿐만아니라 地球의創始는 多數한太陽界와 相互의關係가있고 多數한太陽界는 廣漠한虛空 悠久한光陰 無數한萬有 그들의總合體인全宇宙의因果律의幾部分이다 그렇고보면 秋風을따러 침없이떠러지는 渺小한梧桐의한묘새 宇宙의創始에 그의運命을規定한것이안아나

梧桐묘새를떠르드리는 가을바람이 太平洋에서일어나는 低氣壓의影響을받었다하자 蒙古沙漠에서일어나는高氣壓의影響을받었다하자 다시太平洋의低氣壓과 蒙古沙漠의高氣壓이 北水洋氣流의影響을받었다하자 그러면 梧桐묘의變遷는 時間的으로 宇宙創始의影響을받은뿐만아니라 空間的으로 太平洋 蒙古沙漠 北水洋의影響을받는것이다 太陽의光線은 梧桐묘의變遷에 多大한影響을준다 金星이赤道의中心을通過할때에 太陽의光線에變動이있다하자 그렇고金星은 달은星辰과 相對性的의聯鎖關係가있다하자 그러면 梧桐묘는 無數한太陽과星辰의影響을받는것이다 그리하여 梧桐의한묘새떠러지는것 卽그時와處와動態가 宇宙의創始할때에 規定한그대로의 繼續的의進展이며 現存한萬有와의 聯鎖的關係를갖인것이다

自然科學은「無로부터의突出」「空想的」「偶然的」「奇蹟的」等々 모든非因果的을 否認하는것이다 自然科學이 此를否認한다는것보다 宇宙間에는「無로부터의突出」「空想的」「偶然的」「奇蹟的」等々은 存在치못하는것이다

「無」는何處에서도「無」뿐이오 何時에라도「無」뿐이다 「無」는色、聲、香、味、觸이없을뿐만아니라 「法」도없는것이니 形以下の長廣音臭等이 없을뿐만아니라 形以上的의精神意識等도없는것이다 그런즉 「無」는「無」뿐이오 「無」에서「有」가나올수는없는것이다 科學이밝지못할때에는 大虛空에서 문뜻일어나는電光과雷霆을 「無」에서突起하는것이라고 하얏을는지도몰은다 그렇나空氣와空氣의急激한變動으로일어나는 必然的因果律의現象인것을 알게되얏다

「空想的」이라는것은 「目的的」과달은것을 먼저알아두지안이하면안이된다 目的的이라는것은 意識的으로 一定한目標를定하는것이 目的的인것을達하기爲하야 原因을짓는것이오 空想的이라는것은 空中樓閣의想像의虛構이다 그렇나그目的的인것을達하기爲하야의 짓는原因이 果然그目的을達할수있는 因果律의適中한軌道를 밟아가거나못가거나하는것이問題가되야서 그目的을達할與否가 알수없이되는때에는「目的的」이라는것이 「空想的」과같은結論에떠러질것이다 그렇나「空想的」이라는것은 其目的的인結果를 所定하지안는것은안인즉 그러한意味에있어서 어느程度까지의「目的的」은

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데 「目的的」은 目的을爲하는 意識의行爲라 하고 「空想的」은 實現의與否를超越한純理論的構想이라 하면 別로 들림이 없는定義가 될 것이다. 우리는 岩石에서蓮花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松木에서林檎이 열납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非因果의인 「空想的」은 承認할수 없는 것이다.

「偶然的」? 「偶然」이라는 것은 非因果的 非合理的의意味한 것이다. 그렇나 非因果的의事實은 成立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非常히자주자주 偶然이라는말을쓰게된다. 或人이「偶然」히 길에서車에 치었다. 或人은偶然히집응에서떠러지는개와이 맞여치죽었다. 나는偶然히 非常한珍本을샀다. 나는二十年이나못맞나든친구를 偶然히보지도못하든길에서맞나(中略)二十年來맞나기못하든친구를 길에서偶然히맞나다. 이邂逅에는 原因이있는가 확실하였다. 나는一定한原因에움직여켜서 이리이러한時間에 이리이러한速度로 길을걸어갔다. 나의친구도 달은原因의影響을받아 그러한時에 그러한길을 그리한速力으로걸었다. 이리한原因이 다아올나作用하게되면 우리두사람은 만나자만이하면 안이될것이明白하다. 그럼데 何故로이邂逅가 너게는偶然으로보이는가 何故로너게는 아모因果의必然性도없는줄로보이는가 何故로나는二人의邂逅를 偶然이라고일음하는가. 그理由는極히簡單하다. 나는 친구를動케한原因을 알지못하였든까닭이다. 나는 친구가나와같은거리에있는것도몰르고 따라키나는 우리의邂逅를豫見하지못하였든까닭이다.」(부하린)이말을벌어서「偶然的」이라는것이없는것을 證明하기足하다.

「奇蹟的」은 本質에있어서 「偶然的」과같은것이다. 平凡한事實에있어서 偶然的이라하고 平凡以上の驚嘆할만한事實에있어서 奇蹟的이라할뿐이나「意外」或「非因果的」의意味는一般이다. 甲은꼭죽을病이들어서 여러醫士에게 死刑宣告를받다싶이하야서 藥도먹지않고 轉地療養도하자인이하얏는데 不過數月에「奇蹟的」으로 快差가되였다. 乙은航海를하다가 破船을當하야 꼭잡없이죽게되얏는데 깨여진배人조각을안고 三日이나漂流하다가 偶然히海岸에到着하야 「奇蹟的」으로살어나왔다. 等々の 奇蹟的이라는말을쓰게되는것이다.

病者가「奇蹟的」으로나옴다는말은 重病者는 의례히藥을먹든지 轉地療養을하든지 하는等の治療가안이면 快差하기 어렵다는 漠然한 先入見의概念意識에서 나오는말이다. 服藥과轉地療養等이 病의差効을促進할수있는것이나 服藥과轉地療養을하지않는다고 病이반듯이나지않는것은안이다. 그病者가快差하기까지에는 반듯이그만한理由가있을것이다. 病의內的關係로는 身體와臟腑의構組 血管의通塞 心理作用의狀態等, 外的關係로는 居處 飲食 氣候 播養 等々の모다 重

病에 外 快差까지 條理整然한 順序의 軌律로 進行되야 快差하지만 안이 할수업는 作用을 하는 것이다 그 공식은 $\frac{dx}{dt} = v$ 이 공식은 無一定한 順序의 公式는 안이다 그렇나 病에 外 快差까지 合理的인 因果律의 整然한 實在인 結論에 到着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航海破船者의 所謂「奇蹟的」인 生還이라는 것도 반듯이 可히 避할수 없는 合理性이 있나나 破船을 當하여 漂流하는 剎那에 水勢와 波動이 沈溺하지 않을만한 程度이었고 漂流의 方向이 三日의 時間으로 外에 達할만한 海岸으로 進行되었음으로 그만한 波勢 그만한 時間 그만한 方向 그만한 距離等의 因緣이 會合하여 그사람으로 하여금 海岸에 到達하지 안이 하면 안이 될 因果律이 儼然히 存在한 것이다 그렇고 보면 무슨 「奇蹟的」인 것이요

그렇나 因果律은 宿命論과 同一視할수 없는 것이다 宿命論이라는 것은 「神」「天」「運命」등을 萬能即萬有의 主宰者로 前提하고 人類其他萬有은 그主宰者의 一定한 命令에 從屬되야 그命令대로 服從하는 以外에 一毫의 自由가 없다는 意味 例하면 甲은 富者가 되고 乙은 貧者가 되며 丙은 長壽하고 丁은 短命한 것이 主宰者의 命令에 依하여 施行되는 것이오 當體의 自由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나 因果律은 神의 命令이나 天의 法律이나 運命의 指揮에 拘束되지 機械的으로 服從하는 것이 안이오 宇宙原理의 合理性必然性의 因果關係로 進展된다는 말이다 그럼으로 因果律과 宿命論은 同一한 論法으로 結合시킬수 없는 것이다

因果律과 宿命的의 差異가 宿命論의 命令의 拘束的과 因果律의 必然的合理的에 있다 하자 그렇나 如何히 合理性과 必然性의 因果律이라 하더라도 萬有가 一定한 因果律의 規定을 좇아가게 되는 以上 因果律以外의 行動은 一毫도 할수 없게 될것인즉 無情物은 말할지 말고라도 意識이 있는 動物로도 少毫의 自由가 없이 拘束을 받거나 機械的으로 變遷되는 것이 안이오 그렇다면 因果律과 宿命的의 內在的理論은 別問題로 하고라도 萬有가 非自由的 拘束的 機械的의 結論에 떠러지는 것은 안이오

그것도 無理한 理論은 안이다 複雜을 避하기爲하여 便宜上 人類로 萬有을 代辯하여 말하자 因果律은 조금도 人類의 自由를 拘束하는 것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 왜 그렇나 하면 사람의 如何한 自由行動이라고 한아도 因果律의 安인 것이 없는 까닭이다 如何한 自由行動이라 하더라도 同時同位置의 二個以上의 物體를 들 수가 없고 同時同一物로 二種以上의 作用을 할 수가 없는 것

이다 如何히複雜한自由行動이라고도 반듯이毫釐不差의次序가 있는 것이다 甲이東으로가다가 忽然히들어와서 西으로가고 西로가다가 다시들어와서 東으로간다하자 無論 그것이 甲의自由行動일 것이다 乙東으로가고 西으로가는 그自由行動이 甲의一生의自由行動中 任意의部分의因果律일 것이다 乙의友人을對하여談話하다가 忽然히沈黙하고 沈黙하다가 다시노래를불는다하자 無論 그것이 乙의自由行動일 것이다 談話 沈黙 放歌가 乙의一生의自由行動中 어느部分의因果律일 것이다 그렇면因果律은 自由를拘束하는 命令의規定이안이라 萬有의自由를紊亂치않게한 「保安法」이다

宇宙가創造된以來 萬有의歷史的變遷은 얼마나複雜할 것인가 그림으로宇宙創造以來의萬有歷史는 無論記錄할수도없고想像할수도없을 것이다 그렇나宇宙創造以來 萬有의自由行動的變遷이 如何히交互錯綜 複雜至極하여서 우리의感覺과知識으로는 그것을察知할수없더라도 宇宙間에남아있는 모든歷史的過程은 一絲不亂 條理整然하게 空間과時間에 無形의印이되어있을 것이다

그렇면 過去萬有의歷史的變遷이 宇宙間에 過程으로남아있는 것과같이 未來萬有의變遷은 預定線으로規定되어있는 것이다

뉴톤의科學的大發明이 떠러지는林檎과 因果的關係가 있다면 靈雲祖師의見性은 桃花와因果關係가 있는 것이다 金剛山에서修道하던泗溟大師가 豐臣秀吉이와 因果的關係가 있다면 우물손의民族自決主義가 歐洲大戰과 因果的關係가 있는 것이다 秋風에떠러지는 梧桐의一葉 北水洋의氣流와 因果的關係가 있는同時에 宇宙의創造와 連結이된다면 될앞에난無名의小草가 天體의運行 地理的變遷 宇宙의創造 또는宇宙의終局과 因果的關係가 있는 것이다

筆者가이글을쓰는것도 얼마나複雜한因果的關係를가졌는지 眞像하기어렵지않다 筆者는이글을쓸때에 펜을잡고 잉크를찍어서 原稿紙에쓰게된다 筆者의잡은펜의軸木은 果然어느때에 어느때에나서서 얼마나한風霜을지난뒤에 누구의斧斤에베여져서 얼어한工場에서 轉軸으로製作되야 몇사람의손을거쳐서 筆者의손에잡히게되얏는가 잉크도그리고 原稿紙도그리하다 또이글을쓰는 筆者의손 이글을構想하는 筆者의意識 모든것을綜合하면 實로複雜多端한 因果律的關係를가진것을 證明하기어렵지않다 讀者가이글을읽을때에도 반듯이無數한因果的關係를가게될 것이다

이로말우어 未來의萬有歷史도 燦然한因果律로進行될것을알기에 조금도躊躇할것이없을 것이다 假令어느때에 얼어한仁人志士가 大衆을爲하여 피와땀을얼마나 흘린다든지 어느때에 얼어한國家의興亡의 正反對로 顛覆된다든지 어느때 어느곳의 얼어한佳人才子의 戀愛의로맨스가 얼어케歸着된다든지 라이아가라瀑布가 平地가된다든지 富士山上에배를

매게된다든지 等々 모든歷史의 預定線이 任意의自由를容許하면서 劃然히規定되야 있는 것이다
 宇宙의 因果律은 이러한 것이다 自然 人事 卽天體의運行 地理의變遷 風雨霜雪 山川草木 鳥獸魚鱉等의 모든自然
 科學과 國家의興亡 社會의隆替 制度의變改 人文의盛衰等 모든社會科學의 相互聯絡의空間的關係와 先後連結의 時
 間的關係가 어느것한아도 宇宙의因果律의範疇以外에 벗어지는것이 없다

그러하야 萬事萬物이다 一定한因果律에 規定되야 있는以上 그因果의線을따러究明하면 모든事物을 逆睹或은預知할
 수 있는 것이다 東에夕千萬里外의西方事를 알 수가 있고 北에夕千萬里外의南方事를알 수가 있으며 千萬年의過去事를 溯考
 할 수도 있고 百千劫의未來事를 預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卜筮나靈感等으로 안다는 것은 안이오 正當한科學的知識으
 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그사람의知識程度가 거기까지미치지나 못미치느냐 하는것은 別問題이다
 釋迦如來는 過去現在未來三世의일을 洞察하시고 乃至全世界에나리는 雨滴의數까지라도 낚스이아신다하였다 世人
 은그것을 「虛無」로몰러버린다 그것은虛無도안이오 妄語도안이오 正當한唯心の所現이다 井蛙는 江湖를알지못하고
 夏虫에게 寒水를말할수없는것이다 宇宙萬有는 因果律로進行하고있을뿐이다

新 年 號 에 는

各名士의「佛敎에對한希望」과

僧侶有志의「寺法改正에對한意見」이잇으며 其外

實益가趣味의記事가滿載됩니다